

YULLIN
Newsletter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 ——— 삶의 감동이 있는 성도

열린신문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는 1993년 12월 12일, 방배2동의 작은 지하실에서 설립되어 1998년 10월에 방배동 예배당으로, 2002년 4월에 평촌 현 예배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열린교회는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 삶의 감동이 있는 성도'라는 신앙의 목표를 실천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열린교회의 이름은 요한계시록 3장 7~8절에 근거한 것으로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늘을 열어주신 교회'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열린신문>은 8면으로 이루어졌으며, 열린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열린교회는 본 신문을 매개로 외부성경공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발견하신 분은 1661-4372로 제보 바랍니다.

 성경 토크아보기
가인과 아벨,
하나님은 왜 차별하셨을까?

창세기 4장에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잘 알려진 대로,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형의 제사는 받지 않으심으로 인해 형이 느낀 차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각의 직업에 따라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짓는 자로 땅의 소산을, 아벨은 양을 치는 자로 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들의 제물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아벨의 제사가 피의 제사였고, 가인의 제사는 곡식 제사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로 보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로 인정하신다는 점에서 이 해석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곳에는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며,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아벨의 제사에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예물에 담겨 있었던 반면, 가인의 제사에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본문을 다시 보면, 가인은 단지 땅의 소산을 드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첫 새끼'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벡오르'(bekor)이며, 이는 곡식이나 짐승, 사람을 막론하고 처음 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첫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를 통해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인정받고자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자신께 돌리라고 명하시며,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인식과 감사, 믿음을 담아 드리는 제사의 태도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아벨은 양을 기르며 생명의 탄생과 성장 과정을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을 체험했기에, 그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가인은 큰아들로서 아버지에게서 당연하게 물려받은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인식 없이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단지 예물이 아니라 예물을 드린 사람, 곧 그 마음과 중심이었습니다.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와 그 예배를 동일시하시며,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믿음으로 첫 것을 드리려는 우리의 중심에서 비롯된 진실한 고백입니다. ☆

 텍스트와 콘텍스트

절망의 탄식에서 소망의 찬양으로



김성진 담임목사

들어가는 말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이웃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주면서 살아가도록 지음 받았지만, 오늘날에는 혼자 있는 것을 더 편안하게 여기고, 마음을 나누는 것을 오히려 불편하게 느끼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 결과,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가고, 자신이 소외되고 버려졌다는 감정 속에 절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처해 있었던 현실을 반영한 시편 13편은, 절망의 탄식을 소망의 찬양으로 바꾸는 기도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절망의 탄식

1-2절을 보면, 시인은 자신의 삶을 놓고 깊은 절망 속에서 탄식하며, 마치 아무런 소망도 남아 있지 않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시인이 처한 절망의 구체적인 상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고백에서는 “내가 더 이상 살아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깊은 낙심과 좌절이 묻어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어느 때까지”라는 표현이 중간중간에 배치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탄식의 표현 ‘아드 아나’(ad anah)가 문장의 가장 처음에 위치하며 네 번이나 반복됩니다. 이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시인의 절박한 심정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는 마치 아무런 소망도 없는 자처럼, “하나님, 어느 때까지 저를 외면하시겠습니까?”라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절망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신 것 같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 숨으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는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 마음이 병들었고, 육신은 외부의 적들, 곧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가장 잘 알고, 가장 가까운 분이었던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시고, 그것도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신다면, 그것만큼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시인은 그 절망감 속에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자신을 잊으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얼굴을 돌리시고 자신을 버리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깊은 상실감과 고립감 속에서 그는 극심한 영적 절망을 겪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은혜와 평강, 곧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민수기 6장의 축도처럼, 하나님의 얼굴이 비칠 때 사람은 은혜를 입고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이 가려질 때, 성도는 존재 이유조차 사라진 것 같은 깊은 상실감을 경험합니다.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의 시선과

은혜의 빛이 자신의 삶에서 사라졌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마치 아무런 빛도 닿지 않는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내던져진 듯한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 침체는 삶 전체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결국 깊은 절망과 탄식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성도가 겪는 보편적인 영적 침체의 모습이며,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문제들이 더 크게 느껴지는 상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을 잃은 이의 비극입니다.

회복의 기도

이제 시인은 절망 속에서 마지막 몸부림을칩니다. 바로 회복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외면하심과 숨으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바라보심과 하나님의 들으심과 하나님의 빛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시고
얼굴을 숨기신 듯한 깊은 절망 속,
“어느 때까지입니까” 탄식하는 시인,
영적 침체에 빠지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 깨닫는다
문제는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그분의 빛과 음성을 보지 못한
자신의 영적 어두움에 있었음을

이제, 하나님의 ‘헤세드’를 신뢰하며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

그러는 가운데 시인은 한 줄기 빛을 보았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과 경험했던 한 번의 은혜가 기억났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잊혔으며, 하나님은 자신을 피해 숨어계신다고 탄식하던 시인이, 자신의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영적인 문제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복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침묵이 아닌 자신의 영적 어두움이 문제였음을 고백합니다. “내 눈을 밝히소서”(시 13:3)라는 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시고 바라보시지만, 자신이 그 빛과 음성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눈을 밝혀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시고 바라보시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기도는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시선과 귀가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고, 염려의 소리를 더 크게 들은 데서 절망이 시작되었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

혜가 끊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 감각이 둔해진 것을 깨닫고, 영혼의 회복을 간구하는 기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신뢰와 소망의 찬양

이러한 깨달음은 그의 삶과 마음가짐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변함없고 인자하신 사랑, 즉 ‘헤세드’를 굳게 신뢰하며 그 사랑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시 13:5)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소망을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인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시 13:6)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분명히 인식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향해 베푸신 크고 작은 은혜를 기억하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난다는 것을 깨달은 시인은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받아들이며 찬양으로 응답합니다. 삶의 문제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의 영적인 눈과 귀가 다시 열리면서 절망의 어둠은 소망의 빛으로 바뀌고, 깊은 탄식은 기쁨의 찬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일상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인생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세상의 소음과 두려움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하루하루 무사히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신실한 보호와 돌보심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우리를 그분의 손에서 놓으신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절망의 어둠 속에 빠져 헤어 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며, 우리 삶의 고난과 아픔조차도 우리를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은혜의 표현임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절망 대신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과 문제들이 남아 있는 것과 상관없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하심과 은혜를 분명히 깨닫고 찬송하며,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역시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깊이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세상의 소리보다 더 크게 듣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맺음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은 일상의 당연함 속에 숨겨진 비범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겨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잊고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세상이 더 크게 들리기에 우리의 문제가 커지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염려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인식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와 찬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

청년부수련회 스케치

숲을 빛는 복음



김요섭 청년부
efe69@naver.com

★ 그 숲은...
어쩌면 열대우림인 걸까. 선발대로 도착한 한여름의 수도원은 바나나가 자라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될 정도로 덥고 습했다. 발을 딛자마자 끈적이는 피부. 우리는 남쪽의 어느 적막한 나라로 단기 선교를 온 걸까. 이런 감상도 잠시, 삽시간에 각양각색의 소리가 수도원 마당을 온통 덮었다. 줄지어 오는 버스들,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 모두가만 들어내는 요란한 소리들. 덥다 더워. 어땠니 어땠어. 배고프다 배고프. 각자의 중얼거림들. 그리고 그 속에서 당혹스러운 나. 어라, 벌써 시작한 건가, 정말로? 잠깐만- 하며 붙잡고 싶었지만, 이미 수련회는 시작해 버렸다.



당혹스러운 내 마음을 달래주려는 건지, 처음은 한웅재 목사님의 찬양 콘서트였다. 그렇게 안 보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곤 조용히 노래하는 한 남자. 우리가 각자 한 그루의 나무라면, 이 남자는 작달막한 그루터기일 게 분명했다. 겹겹이 쌓인 나이트를 훤히 드러내어 별이 드는 방향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루터기처럼, 본인의 이야기만을 노래로 만든다는 남자의 노랫말은 그 삶에 언제나 사랑의 빛이 드리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했다. 그래, 나무는 향기를 남겨야지. 부인할 수 없는 깊은 향을 내야지. 하고, 나는 그 노랫말 앞에서 한 뼘, 키가 자라는 걸 느꼈다.

저녁 집회는 김성진 목사님을 통해 '말'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교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단다. 그러니 먼저 좋은 나무가 되렴, 하고 말이다. 지혜로운 말을 하려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겠지. 그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솔로몬처럼 꿈꿀 순 없을 테니. 나는 가장 위대한 지혜, 복음을 품고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했다.

그에 대한 응답이었을까, 두 번의 특강에서는 박광리 목사님을 통해 '복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서명수 목사님을 통해 '두려움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다. 혹시 두 분이 짜신 걸까, 의심하게 만드는 설교였다. 다른 본문이었지만, 같은 결론이었다. 복음, 결국 복음이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은 거. 종이 아닌 자녀인 거. 하나님께 붙들려 자유로운 거 말이다. 그럴 수 있을까.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괜찮지 않아도 괜찮지만, 그게 정말 괜찮은 걸까, 하는 불안한 중얼거림이 내 안에 여전히 있었다. 글썽, 괜찮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너는 세상에 오롯하게 홀로 서 있는 나무가 아니라고. 나무에

겐, 숲이 있다면서.

새벽 집회와 마지막 날 오후 집회에서는 손하람 목사님을 통해 수련회의 주제인 '복음으로 빛어지는 숲'에 대해 말씀을 주셨다. 교회는 한 몸이라, 바울의 고백은 그를 용서하고 품어준 교회 덕택에 가능했다. 교회는, 숲은, 그런 곳이다. 불편함과 불쾌함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 애써 품고 힘써 사랑하는 공동체. 함께 고민하는 공동체 말이다. 우리는 과연 그런가, 물으셨다.

그렇게 끝났다. 눈을 감았다. 뜨니 집이었다. 그러나 물음이 계속 남아 메아리치고 있었다. 그런가. 그런가. 나는 과연 그런가.

매년 있는 수련회, 매주 드리는 예배. 이 무수한 매번이 내게 증명하는 바는, 나는 지독하게 안 바뀐다는 거였다. 그렇게 매번으로 지지고 볶아도 참 변하지 않는 게 나라의 죄인이었다.

그럼에도 기어코 바꾸시는 분도, 결국은 변화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아버지였다. 그게 참 감사했다. 그러니 끝이 아니겠지. 이번에도 역시 끝은 없지. 여전히만 있고 오늘도만 있지.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무는 스스로 숲이 될 수 없듯. 누군가 심고, 심고, 심어야 하는 것처럼. 빛고, 빛고, 빛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숲이 되고, 숲은 이제 나무로 돌아갈 순 없다. 그럴 수는 없다. 숲을 빛는 복음. 빛어내고야 마는 복음. 그 복음 덕분에 우리는 영원한, 숲이다. ☆

교회 소식

해외아웃리치

라오스: 7월 30일(수)~8월 5일(화)
캄보디아: 7월 30일(수)~8월 5일(화)

해외아웃리치를 위한 기도회

일시: 7월 16일(수)~8월 4일(월) 오후 8시
장소: 교육실4(별관 2층)
(* 8월 3일 주일 오후 2시/수요일은 수요일예배 시간/
금요일은 금요기도회 시간)

부모기도회

일시: 8월 23일(토) 오전10시 30분
장소: 예배실(본관 1층)

여름 사역 방학 일정

릴레이기도: 7월 28일~8월 9일
화요전도모임: 7월 29일~8월 26일
수요섬김기도: 7월 30일~8월 27일
목요직장인예배: 7월 31일~8월 14일
토요강단기도: 8월 2일~8월 30일
구역모임·구역장강의: 8월 3일~31일

본관 1층 후문 야간 통행 제한

안전을 위해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본관 1층 후문 통행이 제한됩니다. 이 시간대에 기도 등 용무가 있으신 분께서는 정문(안내데스크 쪽)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역

1일(금)~29일(금) 한여름 밤의 특별금요기도회
11일(월)~13일(수) 교역자 가족수련회
14일(목)~17일(주일) 국내원거리아웃리치
17일(주일) 성찬식
23일(토) 부모기도회
24일(주일)~31일(주일) 장학현금
30일(토)~9월 27일(토) 일대일양육교사훈련학교

일대일양육교사 훈련학교

연약한 지체들을 품고, 교리와 삶으로 양육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갈 믿음의 교사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일시: 8월 30일(토)~9월 27일(토)
오후 1시~오후 4시(4주간) (9월 13일은 휴강)
장소: 강의-교육실4(별관2층)/그룹모임-소세미나실
대상: 청장년 교리반 수료자 이상



국내원거리아웃리치

일정
8월 14일(목) ~ 17일(주일)

장소
전남 완도군 소안진산교회

새가족

▶▶ 장년

박선영(84)
조세현(77)
김지영(92)
임연순(45)
임동규(64)
박재현(87)
차보경(90)
김찬호(86)
김주연(84)
신서경(85)

▶▶ 청년

장은영(75)
강현일(75)
윤정진(54)
고현월(59)
임현섭(01)
김시윤(00)
임정훈(98)
김준수(89)



아웃리치 후기

씨를 뿌리는 자의 노래



김기영 장년2교구
ppappy83@hanmail.net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에 머
 짝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강원도
 정선에 있는 반천교회에 도착 직후, 60여 명의 열린교회
 성도들과 함께 부른 첫 찬양 “꽃들도”의 가사입니다. 저는
 이 가사가 왜 이리 가슴에 울리는지 모르는 채 저희 조원
 들과 전도를 나갔습니다.

첫날, 처음 만난 분은 송어양식장 직원분이셨는데, 반
 천교회와 잘 지내고 있으니 괜찮다며 저희의 접근을 거
 절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만난 송어횃집 사장님은, 선물과 함께 드린
 초청잔치 초대에 밝게 대응해 주시면서도 일이 바쁘다며
 곧 가셨습니다. 세 번째로 만난 농부 어르신께서는 자리
 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교회를 언급하니 일해야 한다
 며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네 번째로 만난 안양 출신 할머
 니는, 반천교회에서 왔다고 하니 환대해 주셨지만, 복음
 을 전하려 하니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셔서 기도만
 해드리고 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너무 아쉬웠습니다. 영접기도는커녕 복
 음을 전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망이 보였

습니다. 마을 분들께서 반천교회에 매우 호의적이셨기 때
 문입니다.



문득, 이는 반천교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씨 뿌림의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비록 저는 열매를 보지 못했지만, 누군가가 과거부터 지
 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씨를 뿌릴 것이고, 이를 통해 우
 리가 알지 못하는 때와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다음날, 저희는 다시 전도를 나갔습니다. 만났던 분들
 두 번, 세 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날 밤 기대했던 것

이 현실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날 스쳐 지나갔던 송어양식장 사장님께서 일하고 계
 션데,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하니 흔쾌히 들어오
 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복음을 전했고 사장님은 영접기
 도를 하셨습니다. 사과 농장 농부 어르신도 다시 만난 후
 복음을 전했고, 영접기도를 하셨습니다. 안양 출신의 할
 머니는 초청잔치에 오셔서 끝까지 예배를 드리며, 복음을
 듣고 가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마을을 떠났고, 반천 지역 마을 주민분들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가 전한 복음을 그분
 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분들이 했던 영접기도에 진
 정성이 어떤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저는 마음속으로 반천 지역에서의 하늘을 소망하
 며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를 내년에도 많은 열린교회 성도와 함께 부르며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에 머
 짝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

기도에서 시작된 전도의 발걸음



김동홍 청년부
kdhik@hanmail.net



저는 작년에 이어 올해 2번째 아웃리치에 참여
 하게 되었습니다. 아웃리치 신청 기간이 시작되
 고 아웃리치를 위한 기도회가 시작되었지만, 저에게는 교
 회에서의 아웃리치 사역은 먼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무슨 아웃리치야...나에겐 더 급한 일이 있지...거기에 좀
 더 집중하자..’

하루는 순 단독방에서 순장님께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공유하자고 하여서, 저는 아웃리치에 대한 기도 제목을
 공유하였습니다. “아웃리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사역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선
 한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단독방에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몇
 시간이 지나고 갑자기 제 안에서 아웃리치를 위한 기도
 에서 멈추지 말고, 직접 사역에 참여해야 한다는 강한 마음
 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아웃리치 참여 신청을 하여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첫 아웃리치 때 사역에 대한 아무런 개념 없이 참여하
 는 바람에 복음 제시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시간들이 떠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기도로 저의 태도와 영적 상태가 준
 비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제가
 충만해지도록 기도하며, 복음 제시문 연습을 소홀히 하지
 않으려 노력하였습니다.

기도로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시간들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떤 마음으로 제가 아웃리치를 참여해야
 할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
 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위로와 힘이 되시기 때문이다.
 아웃리치 기간 동안 모든 일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선한 행위를 하기에 힘쓰자!” “마을에서 만나게 될 어르신
 들의 삶을 나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그 영혼들을 나는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르신
 들의 삶을 모두 아시고, 그 영혼들을 온전히 사랑하신다.
 내 힘으로만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소
 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자!” 이러한 기도 제
 목들로 기도하며 한 편으론 복음 제시에 대한 걱정이 있었
 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에 대해 기대함으로 아웃리
 치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구상교회가 있는 마을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제
 가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마을 어르신들은 충청도분들답
 게 정말 여유 있고 부드럽게 저희를 맞아 주셨습니다. 하
 지만 그러한 일상적인 환대와 복음에 대한 반응은 많이
 달랐습니다. 복음을 제시하는 동안의 여러 어르신의 다양
 한 반응을 보면서, 문자로 정리된 이 복음 제시 글을 이야
 기하는 그 순간에 영적으로 치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
 을 느꼈습니다.

한 할아버님과 오랫동안 대화하면서, 그 어르신의 가
 족 상황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목회 사역을 하는 처제
 의 남편분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저는 중보기도로 복음 제시를 돕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
 를 들으며 신학적인 복음 변증으로 먼저 대응하고자 하는
 저의 모습을 보며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

을 하고 있는 저에게 그러한 상실과 아픔이 물려왔을 때,
 저는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해 보
 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며, 저는 이 어
 르신의 삶의 무게를 다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복음 제시
 시간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리스도의 십자
 가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결국 복음 제시를 끝까지 하지는 못하였지만, 그 어르
 신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며 다른 가구로 발길을
 향하였습니다.

마을팀 팀장님과 잠시 마을을 걸으며 시골 교회의 상황
 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시골의 마을들이 점차 규모가
 줄면서 소멸 위기에 있어서 교회 또한 신자 수가 부족해
 서가 아니라 전도할 대상 자체가 없어져 감에 따라 소멸
 할 위기에 있다고 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한동안 제 머릿
 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구상교회와 김성
 훈 목사님을 생각했을 때, 왠지 모를 쓸쓸함이 느껴져 슬
 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구상교
 회를 통해서 이 작은 마을에 구원 사역을 행하고 계심이
 느껴져서 구상교회가 참 필요하고 귀한 교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시장경제 흐름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서 있으라고 하신 곳에 교회가 존재하게 하시고 그 작은
 마을에서 예배가 행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으로 멋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구상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노력하게 하시고, 마
 을 안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도록 우리 청년4국을 사용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 사
 역에 저희의 작음이 쓰임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

아웃리치 후기

아웃리치에서 경험하는 예수님의 일상



김미정 장년5교구
vlskmj@naver.com



새가족이 되고 첫 세례를 받고 이어지는 첫 구역에서의 꾸준한 예배와 섬김의 자리를 경험하며 나는 어쩌면 자신을 바라보기에만 열중한 8년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다. 아웃리치는 말 그대로 밖으로 뻗어가도 달하여 지원하는 선교 활동이다. 자격 미달이라고 자신을 평가하며 엄두도 내지 못했던 나에게 또다시 뻗어주시는 구역장님의 손을 이번에는 덤석 붙잡고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여량교회로 나의 첫 아웃리치는 드디어 시작되었다.

1979년에 설립된 여량교회는 6년 전에 박경일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고 50년 가까운 역사 속에서 다시 큰 부흥을 준비하고 있는 교회이다. 내가 속한 조는 교회에서도 조금 차를 타고 가야 하는 마산재 마을이었는데 사방이 병풍처럼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곳은 한눈에도 보이는 집들이 열 가구가 안 돼 보였다.

마침, 그 마을 주민이신 여량교회 권사님이 우리를 마중 나와 주셨다. 12세 때 불거리를 앓은 후 시각장애를 갖게 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고 걸어 다니면서 첫 만남과 전도 사역은 시작되었다. 환경에 순응하며 자연과 하나의 몸인 듯 살아가는 마을 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섭리 속에서 일하는 선하고 충직한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는 성령을 얼른 깨워주시길 바라는 긴급한 기도의 마음이 들기도 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영접기도로 다음날을 기약했던 2박 3일의 경험은 집으로 온 후에도 복음 전달의 아쉬움으로 남았고, 거부하는 분들에게선 가족과 가끔의 나의 모습까지 반사되어 심란한 시간이 이어지기도 하였다.

맞이해 주신 여량교회 권사님의 연로하신 부모님은 처음으로 따님이 섬기는 여량교회에 첫발을 내딛는 열매를 보여주셨다. 아흔 살의 김남기님은 정선아리랑 기능보유자로 평창올림픽 개막식에서 세계로 뻗어나간 감동의 소리 무대를 선사해 국민들의 마음을 몽클하게 해주신 소리꾼이시다. 인간의 희로애락을 아리랑 곡조에 담아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는 선조들과 여전히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후손들의 모습에 복음의 노래가 함께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다. 삶의 끝은 마지막이 아니라는 가장 기쁜 소식이 전해지길 간절히 원하며 더이상 아리랑이 슬프게만 들리지 않길 바랐다.

따님도 아버님의 소리 은사를 그대로 이어받으셨는데 마치 예비해 두신 듯 어머니의 예술적 은사를 전수받은 우리 열린교회 권사님과 함께 무대를 만들어 주셨다. 국악 찬양과 가야금 소리의 앙상블은 아직도 귓전과 마음을

울리는 듯하다.

그곳에서 퍼지는 그 찬양 곡조와 하나님의 일꾼으로 순종하는 열린교회 대원들, 그리고 정성 가득 섬겨주신 맛난 음식들이 있는... 아마 천국은 지금 이곳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어느새 우리는 사랑과 능력,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채워나가고 있었다. 새벽기도로 시작하고 이 마을 저 마을 사람들을 만나고 또 기도드리는 하루하루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상이지 않았을까?

가장 힘든 주방을 섬겨주신 권사님은 집사님의 마사지로 올라가지 않던 팔이 꽤 올라가는 치유의 작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주신 팀장님 유머에서 피어나는 웃음꽃 또한 활력소가 되어주었다. 무엇보다도 청년부의 청소년 멘토링으로 채워주신 은혜는 내년을 약속하게 하는 아이들과 청년들의 새기손가락 걸기였다. 온가족이 함께한 명성인 목사님과 사모님은 더 큰 비전을 꿈꾸시는 듯했고, 우리 각자의 연약함은 주를 의지하고 가면 문제 될 것이 없어 보였다.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신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아웃리치의 천국잔치와 함께 나의 첫 아웃리치는 작은 기적들로 채워진 삼일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시간이 아닌 예수님의 일상이었다. ☆

아이와 함께한 6년 만의 은혜



원지에 장년3교구
whljy2327@naver.com



저에게 이번 아웃리치는 특별했습니다. 청년부 때부터 기회가 되면 꼭 참석했던 국내아웃리치였는데, 장년부에 올라와서 처음으로 네 살 아이와 같이 갈 수 있던 6년 만의 아웃리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 모임에 참석하면서도 기대뿐만 아니라 걱정도 되었지만, 강원도 정선에 있는 덕천교회에 도착해서 험준한 산세와 강에 둘러싸여 있는 멋진 절경을 보니 이상하리만치 걱정이 싹 사라졌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조원들과 함께 어르신들을 찾아 볼 때는 어린아이가 있어서 그런지 반갑게 맞아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 복음 제시를 잘 들어주셨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제가 방문한 강원도 정선 연포마을의 대부분 어르신과 동네 주민분들이 교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덕천교회와 덕천교회 담임목사님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도 띄엄띄엄 집이 있는 이런 외딴 오지에서 담임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마음을 다해 사역하셨는지를 느끼고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초청잔치 때에도 역대 최고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다는 것도 기뻐지만 그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벌써 정든 것처럼 반가웠습니다. 특히, 청년부가 준비한 특별연극을 보는데 제가 다 감동을 받아 눈물이 났습니다. 미용, 마사지, 네일 등 반나절을 꼬박 쉬지 않고 섬기는 집사님들의 모습에도 마음 깊은 울림이 일었습니다.

경사가 가파른 곳이 많고 더운 날씨 탓에 힘들어하는 아이를 안고 돌아다니는 것이 쉽지 않아 날이 갈수록 체력이 떨어져 갔지만 아이를 안고 걸을 때도 눈앞에 보이는 멋진 풍경이 그 순간은 허리의 아픔도 잊은 듯했습니다.



아쉬웠던 부분은 체력이 떨어져 갈수록 외웠던 말씀이 잘 생각나지 않거나 해야 할 말들이 뒤돌아서면 생각났던 일입니다. 준비 모임에 모두 참석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개인적인 말씀 암송을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내년에도 기회가 되어 갈 수 있다면 더 철저히 준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구 개편으로 이번에 장년 3교구로 왔을 때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뻘쭘했었는데 이번 국내아웃리치 내내 교구분들께서도 따뜻하게 대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매 끼니 만들어 주시는 만찬도 아웃리치의 큰 기쁨 중의 하나였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섬기려 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가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온 행복한 아웃리치였습니다. ☆

추천도서

당신의 입을 거룩하게 하라

존 파이퍼, 저스틴 테일러(전의를 역)/두란노

우리가 내뱉는 말은 한마디도 중립적이지 않다. 생명으로 향하는 말과 죽음으로 향하는 말이 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말이 어떡해야 하는가. 영적 성숙이 혀의 사역을 통해 증명된다. ...이 책의 저자들은 신학적인 통찰을 통해 복음에 담겨 있는 은혜의 달콤함과 진리의 힘이 우리의 모든 말에서 어떻게 묻어나야 하는지 보여 준다. 존 파이퍼는 이렇게 묻는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을 한다면 이 세상 곧 가정과 교회, 학교와 사회가 어떻게 바뀔까?" 이 책을 읽으면서 해답을 찾아보기 바란다.



(출판사 서평)

포토에세이

사진: 김범무(장년4교구)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5절

청년부수련회 후기

귀 기울임의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



이혜선 청년부
zzzzz0112@naver.com

올해 2월, 타지에서 로스쿨 생활, 수험생활을 마치고 4년 반 만에 열린교회에 다시 정기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방문했던 2019년도 1월을 떠올려보면, 새가족부와 성장반 교육을 수료하고 매주 예배와 순모임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공동체구나' 하는 확신 속에서 은혜를 누렸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러나 이듬해 하반기부터는 코로나와 타지에서 뺄뺄한 학업으로 교회 출석이 어려웠고, '믿음이 성장했으니 혼자여도 후퇴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도 잠시, 1년 정도 지나니 나태해진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된다는 생각으로 올해 1월 시험을 마치고 다시 열린교회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교리반을 수료하고, 순모임, 아웃리치 등을 함께하며 감사하게도 다시 신앙 공동체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못 누렸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처 교회에서 대예배만을 드리던 생활을 청산하고 열린교회에 다시 다니게 된 지 얼마 안 되어 신앙 공동체의 유익을 특히 절감하고 있던 시기에 '복음으로 빛어지는 공동체'를 주제로 수련회를 한다고 하니 꼭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박 3일간의 말씀 집회, 새벽기도회, GBS 모임 등은 제 안에 묵혀있던 세상 때를 벗겨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손하람 목사님께서 GBS 조장으로 섬겨볼 것을 권하셔서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부담감이 들었지만, 미리 여러 번 책을 읽고 기도하며 준비하다 보니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깊어짐을 느껴 감사했습니다. 모임을 통해 조원분들 각자

의 고백을 들으며 공감되고 위로받았고,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지체들의 나눔을 통해 제 모습을 반성하고 경건의 훈련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손하람 목사님의 설교는 수련회 주제를 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고백을 들으며 제 모습과 참 많이 닮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공동체 내에서 제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 저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부터가 제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공동체를 제가 너무 쉽게 판단하고 있음에 반성이 되었습니다. 사랑이 부족하고 기능적 공동체관으로 점철된 제 부족함을 보니 복음의 능력에 의지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담임목사님의 '말로 드러나는 인격'을 주제로 한 설교는 복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구체적 지침으로 다가왔습니다. 말의 중요성을 잘 아는 것을 넘어 잘 실천하기 위해서

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 뱀의 소리를 듣게 된다는 점이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 등에게도 살리는 말을 하도록 교정 훈련을 먼저 시키셨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잘 낙담하는 성격인데 제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말들을 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박광리 목사님의 '복음의 공동체 세우기'를 주제로 한 설교를 들으며 제 안의 율법주의적 사고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자기검열적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부족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는 점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부족한 것은 복음으로 채우자는 말씀이 위로가 되었고, 생각해 보면 내가 완벽히 잘 해서 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은혜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서명수 목사님의 '두려움과 복음'을 주제로 한 설교를 통해서야 야곱의 인생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두려움의 연속이었던 저의 지난 몇 년간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대학원 입학부터 본시험 합격까지 쉬운 것이 없었던 지난 세월, 이불을 적시며 올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일이 잘 안 풀리나 반추하며 죄책감을 가질 때도 있었고, 불확실성의 두려움 속에 허덕일 때도 있었지만 손내밀며 힘주신 주님이 떠올랐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개인의 두려움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로 우리를 견인해 줍니다. 저를 포함한 열청 모두의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

사랑부캠프 후기

노아의 믿음을 따라, 사랑부 캠프 이야기



백준호 장년4교구
flutist74@naver.com

안녕하세요. 열린교회 사랑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 장년4교구 백준호 집사입니다. 2025년도 여름 캠프를 다녀온 소감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부 캠프가 '믿음의 모델 노아'라는 주제로 경기도 양주 소재 딱따구리수양관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있었습니다. 흐린 날씨 가운데 출발하여 약간의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지만 무덥지 않은 날씨가 오히려 좋았습니다.

정호석 목사님의 신나는 찬양 인도와 말씀 선포로 첫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진 야외 레크레이션 활동으로 교사, 지체, 봉사자 간의 서먹함을 깨뜨리고 맛있는 저녁 식사 후 사랑부 교사들의 각본 및 연출로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연극으로 공연하였습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오직 의인이었던 노아를 택하셔서 심판을 예고하시고, 방주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이후 몰로 세상을 심판하신 장면과, 무지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까지를 담은 이번 연극은, 다소 무겁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사랑부 지체들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색했습니다. 또한 지체들에게 단역을 맡겨,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참여형 연극으로 꾸며졌습니다.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노아의 모습을 잘 알게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두 번째 은혜로운 찬양과 귀한 말씀 선포가 있었고 지체들과 교사들이 서로 손을 잡고 합심 기도도 하나님 앞에 늘 바르게 살고 하나님을 느끼며 살고자 결단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함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붙드시고 교사들도 더욱 열심히 지체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캠프를 위해 애쓰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 정호석 목사님, 총괄 김혜정 부장님, 각 파트의 진행을 담당하신 교사분들, 봉사를 위해 헌신하신 장년 집사님들과 청년부 지체들 한분 한분 모두 감사합니다.

이번 캠프를 통하여 사랑부 지체들에 대해 예전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되었고 1박을 통하여 지체들과 늘 함께하는 부모님들에 대한 마음도 조금이나마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과 가정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섬세한 돌봄이 미치지 못한 몇몇 지체들에 대한 아쉬움이 유감으로 남은 부분이 있었지만,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와 안도함도 동시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랑부 예배를 더욱 보완해 나가겠다는 목사님과 교사들의 다짐과 함께 후기를 마칩니다. ☆

여름성경학교(미취학부 교사) 후기

배우며 가르친 여름성경학교, 교사도 자랍니다

신요섭 장년5교구
spyisg@gmail.com



꽃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준비한 여름성경학교는, 아직 햇병아리 교사인 저에게 배움과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작년 유아부에서 첫 정교사로 섬기기 시작하여 현재는 5세 찬양 2반을 맡고 있는 2년 차 새내기 정교사입니다.

작년 여름성경학교 때는 모든 것이 처음인 저에게 기존의 베테랑 선생님들을 따라 다소 소극적으로 참여하며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임원으로 유아부를 섬기게 되면서, 여름성경학교 준비를 위해 다양한 역할을 맡아 주도적인 위치에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6월 파이디온 강습회 참여를 기점으로 모두 함께 전력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유아부 자체 강습회 공과 시연 준비와 처음 해보는 인형극을 스테프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들을 통해, 이번 주제 말씀과 내용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작게나마 품게 되었습니다.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쉽고 직관적으로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많았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것을 깨끗이 하여 예배를 회복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는 이 세 가지 소주제를 접하면서, 어떤 부분은 성인들에게도 전달하

기 쉽지 않은 내용들이 있다 보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 예배의 모습과 태도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부끄러운 제 모습들이 떠오르며,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순종하며 준비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다시금 일깨워 주셨습니다. 준비하는 하나님과의 과정이 쉽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함께하는 동역자분들이 있어 감사하고 든든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여름성경학교는 4, 5세 아이들의 참석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말씀과 찬양 시간에는 은혜가 흘렀고, 인형극·그룹 활동·공과 활동 등도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에 대한 이해와 집중력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예배를 어떻게 깨끗하게 드릴 수 있는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배우고 기억하여,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멋지고 예쁜 아이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무더운 여름, 교회학교의 중요한 사역 하나가 또 지나갔지만, 우리 아이들과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남겨진 이 말씀이 한국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고 부흥되는 도화선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

곰곰이 생각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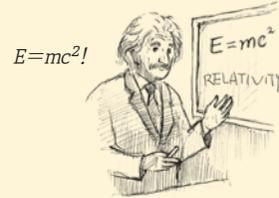
글·그림: 나동훈
gonggom2@designzip.co.kr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원리는 산을 넘고 넘어 세상을 지배한 나폴레옹과는 다릅니다.



나의 사전에는...!

상대성이론으로 세상을 놀라게 한 아인슈타인과도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원리는 먼저 그가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세상이 그리스도인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원리도 같습니다. 바로 그가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이 원리와 상관없는 종교인의 영향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2장 14절)

유아부 7세 윤시원



저는 여름성경학교 전날 유치원에서 갑자기 열이 나서 하원하게 되었어요. 기대하고 있던 여름성경학교는 너무 가고 싶어서 엄마, 아빠께 "내일은 열 안 날 거예요. 교회는 갈 수 있을 거예요"라고 말했어요. 내일은 낮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잤고, 다음 날 예배에 갈 수 있었어요! 여름성경학교에서 예수님 쿠키 만들기 시간이 제일 재밌었어요. 예배 시간에는 전도사님께서 아플 때, 불편한 일이 있을 때, 화가 날 때나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시원이는 앞으로도 아플 때나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기도 시간에는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많이 만났어요. "시원아 기도해라.", "시원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잘 따라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시원이를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유아부 4세 강푸름



작년에 여름성경학교 전날 수족구에 걸려 기다렸던 첫 여름성경학교를 못 가서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올해는 아프지 않도록 엄마랑 일주일 동안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건강하게 여름성경학교에 갈 수 있어 정말 기뻐요. 특히 영아부에 가게 된 동생과 함께 예쁜 티셔츠를 입고 가니 더 신났어요. 토요일과 주일 2일 연속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과 율동도 하고, 전도사님 말씀도 듣고, 풍선 놀이도 했어요. 무엇보다 인형극이 제일 재미있었어요. 유아부 처음 올라와서는 썩썩하게 잘 적응했는데 최근에 엄마를 찾고 울어서 선생님과 엄마를 걱정시켰어요. 무엇보다 기쁘게 예배받으실 하나님께서 가장 속상하실 거 같아서 앞으로는 울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사랑하는 엄마, 아빠, 동생에게 줄 맛있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듯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는 저의 마음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는 어린이가 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한여름 밤의 특별금요기도회

일시
8월 매주 금요일 | 오후 8시

장소
본관 3층 예배실

강사

- 1일 류응렬 목사(와성튼중앙장로교회 담임목사)
- 8일 원종천 교수(아신대 역사신학 명예교수)
- 15일 조호형 교수(총신대신대원 신약신학)
- 22일 주종훈 교수(총신대신대원 예배학)
- 29일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금요기도회



행복한 사람

혼자 핀 들꽃에서 푸른 잔디밭까지

박종환 장년4교구
arbol75@naver.com



살아오면서 여러 번 전도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반 친구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 뒤로 대학교 때 선배가, 회사에 다니면서도 여러 선후배 동료분이 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피해다니기 바빴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의 노력과 반대 방향을 향해서 내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흔이 넘도록 신앙이 없었습니다. 지금의 아내와 만남을 시작할 무렵 아내가 조심스럽게 저를 전도했습니다. 저는 늘 복음을 피하기만 했는데 그날 아내의 전도는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소개해 준 교회에 바로 출석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제게 가장 알맞은, 가장 좋은 시간을 예비해 놓으신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열린교회 성장반을 다닐 때, '하나님은 끈질긴 추격자이시다'라는 설명을 들으면서 '아! 하나님께서 40년이 넘도록 나를 쫓아다니시면서 나를 복음의 길로 인도해 주셨구나. 예정하신 그대로 이루어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교회는 제가 살던 구로구에 위치한 작은 지하실 교회였습니다. 당시엔 교인이 그리 많지 않았고 저처럼 교회에 처음 출석하는 새신자가 거의 처음인 교회라 저를 환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 1회 담임목사님이 직접 학습 교육도 시켜주셨습니다. 교육을 받을수록 기독교란 무엇인지, 신이란 어떤 존재인지, 교회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식은 조금씩 쌓여가는 것 같은데 믿음은 생기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던 시절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고민을 아내와 당시 목사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목사님은 매체를 통해 간증하시는 분들처럼 단번에 회심하고 곧바로 드라마틱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서서히 물들 듯 회심하는 분들도 계시니 조금씩 결론 내리지 말고, 계속 공부하며 기도해 보자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 말에 힘입어 믿음의 열매가 맺히길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 시간이 모여갈 때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며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혼 후 아내는 초신자인 저를 배려해 젊은 시절을 함께한 열린교회를 떠나 신혼집과 가까운 제가 다니던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열린교회와 다른 분위기에 힘들어하는 아내를 보며, 교회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응답을 바라며 기도하기를 수개월, 다시 열린교회로 돌아오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혹시 다시 마음이 흔들려서 또 다른 교회를 계속해서 찾아다니게 되면 어쩔까 하는 불안함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기도에도 대한 응답이 우리 부부를 위한 하나님의 예정이라 믿었습니다. 교회를 옮기고 처음 출석했을 때, 예배 후 아내가 교회를 다니며 그렇게 밝게 웃고 여러 성도분과 교통하는 것을 보고, '아, 잘 결정했구나. 이런 게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생활도 신앙생활도 안정되어 간다고 느낄 무렵, 이제 갓 돌이 지난 아들이 장염에 걸렸습니다. 처음 겪는 염증 반응에 아들은 열이 40도 넘게 올라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때 병실에서 링거를 맞으며 고온에 지쳐 자고 있던 아들을 바라보다 자연스럽게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평소 식전 기도나 드릴 줄 알았던 미숙한 제가 마음을 다해서 오랜 시간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제 신앙생활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도, 기도를 대하는 태도도, 반복적 회심을 대하는 태도도 모두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추격하셔서 저를 부르시는 데 그치지 않고 회심과 성화의 영역에도 은혜를 주시기 위해 끝까지 추격하셨다는 것을 느끼고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보잘것없는 믿음이지만 내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동행해 주심을 믿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열린교회에 출석하면서 성장반을 마치고 첫 구역모임에 배정됐을 때가 마침 아들이 갓 태어난 때였습니다. 차로 1시간 넘게 와서 12시 예배를 드리고 2시 구역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초보 아빠인 제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행동이지만 아들 핑계를 대고 구역모임엔 곧잘 빠지곤 했습니다. 당시 구역장님과 구역원분들도 제 이런 행동을 아셨을 텐데 크게 나무라지 않고 제가 가끔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환대해 주셨습니다. 참 고마운 일이란 걸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역모임의 분위기를 해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엉터리 참석이었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구역모임에 참석하는 횟수가 쌓여 갈수록 구역모임이 더 편해지고 구역원과의 교통이 더 원활해졌습니다. 제 개인적인 어려움도 편하게 나누게 되었고 다른 구역원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주는 분위기를 느끼며 왜 구역모임이 필요한지 알게 됐습니다. 한 가지 주제로 성도 간 의견도 나눌 수 있고, 현재 자신의 상태를 얘기하며 위로받을 수 있는, 성도 간의 견인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란 것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처음 교회에 출석했을 때, 저는 홀로 핀 들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햇살도 혼자 즐기지만 바람도 홀로 이겨내고 비도 혼자 맞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뻐뻐한 잔디밭에 있는 잔디 중 하나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서로 기대고 소통하며 푸른 잔디밭을 이루고 있는 느낌입니다. 성도 간의 교통이 더 활발해져서 더 넓고 푸른 잔디밭을 이루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형을 전도하여 교회에 출석시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내의 전도로 교회에 출석하시고는 계시지만 의자에 20분 이상 한 자세로 앉아 계시기가 힘들어서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인지 아직 신앙의 뿌리가 내리시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신앙의 열매를 맺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들이 자신의 신앙을 갖길 바라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가 서로를 의지하고 소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느낄 수 있는 가정을 이루어 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김성진
- 시무장로** 김기현 박정갑 금성철 황철호 김대영 박기준 김용연 성경열 김춘경 이영춘 구용희 이동훈 박희준
- 은퇴장로** 임두순 이대환 김희철 박찬동 김원호 김남근
- 부목사** 이성도 최성기 류요한 권경철 명성인 심재운 정대환 김하림 이규희 김동기 손하람 최영광 김진산 김태영 정호석 최은광
- 협동목사** 정창욱
- 강도사** 김민성 이두호 조일권
- 전도사** 최선미 양승희 김미영 조희숙 곽해정 김현희 김다영 김진하 이찬 이순이
- 교육전도사** 박승훈 권세원 이해선 박주광 김태훈 최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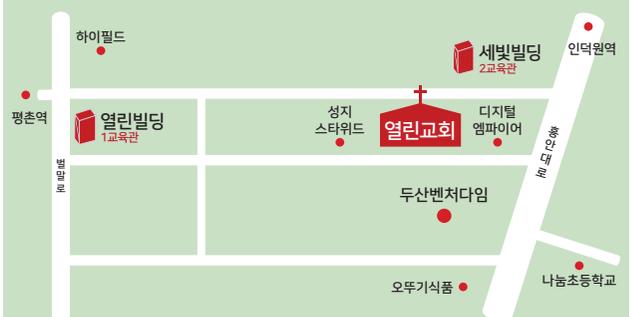
파송선교사

- A국:** 2 units / **B국:** 1 unit
- 말레이시아:** 양선우 & 전혜림
- 에스와티니:** 황아론 & 양진영 / 박현철 & 박상우
- 인도네시아:** 신동진 & 정지현
- 태국:** 김요한 & 이진

예배시간 안내

	구분	시간
주일예배	1부	오전8시(본관 3층 예배실)
	2부	오전10시(본관 3층 예배실)
	3부	정오12시(본관 3층 예배실)
	4부	오후2시(본관 3층 예배실)
주중예배	수요일예배	오후7시30분(본관 3층 예배실)
	목요일장년예배	정오12시(본관 3층 예배실)
기도회	새벽기도회	오전5시30분(본관 3층 예배실)
	금요일기도회	오후8시(본관 3층 예배실)
	화요일전도기도회	오전10시(본관 1층 예배실)
	수요일성경기도회	오전10시30분(본관 3층 예배실)
	토요일강단기도회	오후4시(별관 2층 교육실4)
	교회학교	청소년부
소년부		오전10시/정오12시(열린빌딩 2층 교육실3)
초등부		오전10시/정오12시(열린빌딩 2층 교육실2)
유년부		오전10시/정오12시(세빛빌딩 4층 교육실3)
유치부		오전10시/정오12시(세빛빌딩 3층 교육실2)
유아부		오전10시/정오12시(세빛빌딩 2층 교육실1)
영아부		오전10시/정오12시(별관 1층 교육실2)
사랑부(취학부)		오전10시(별관 1층 교육실1)
외국인	중국팀	정오12시(세빛빌딩 5층 중국실) 中午12点(世光大厦5楼中文部)
	백향목	봄·가을학기 금요일오전10시30분(본관 1층 예배실)
금요 테마학교	미취학부	오후8시(별관 1층 교육실1)
	취학부	오후8시(별관 1층 교육실2)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4번출구)에서 버스 환승하거나 평촌역(3번출구)에서 20분 정도 걸어서 오시면 됩니다